

2012. 12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다일공동체

www.dail.org

다일
공동체

드라마틱한 감동실화 **뮤지컬**

바깥에서 시인 안에서 사랑하는 퍼주는 사랑

수녀를 아내로, 588사람들을 친구로,
상처받은 이들을 애인으로



12.18(화)~12.29(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평일 7시30분 (수,금,24일,25일 3시 공연있음)

토 3시, 7시30분 / 일 3시

밤피에서 꿈피로!

2012년을 마감하며 올 해를 돌아보니 지나온 밤자욱마다 은총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올 한해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다 하시고, 캄보디아 수상 빈민촌에서 살던 르은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누리게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대!

이 모든 감사가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어느 누구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각 분야,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한 일하기에 더욱 더 가슴 벅찬 희망을 현실로 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찾아온 정치인이나 이름없이 빛도없이 늘 겸손히 섬기시는 봉사자들이나, 하루하루 매일 밥피를 지키는 밥피 스태프들이나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그리고 해외의다일공동체 지체들이나 그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이 땅에 밤 굶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여 그들을 돕는 자비와 긍휼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는 것 그래서 모두가 절망적이라고 할 때,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퍼 드리려고 합니다.

'밤피' 에서 이제는 '꿈피' 로 많은 이웃들과 함께 꿈꾸는 다일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올 한해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아름답고 감동이 넘치는 고마운 인사만 계속 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일공동체 곁에 여러분이 계시서 정말 행복합니다.

희망찬 새 해 맞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샬롬!

2012년 12월에
작은형제 **침** 은도 목사 올림



* 하나님을 기쁘시게

* 이웃을 행복하게

* 세상을 아름답게

C O N T E N T S

- 02 Focus 나눔으로 1°C 따뜻해진 세상
- 06 Review 다일의 날/ 창립예배/ 유럽 다일영성수련
- 08 사랑나눔기업 마누카내추럴
- 10 해외 다일의 현장 필리핀다일공동체
- 11 해외 다일의 현장 네팔다일공동체
- 12 해외 다일의 현장 탄자니아다일공동체
- 14 국내 다일의 현장 다일 러브 컬처 바자
- 15 사랑나눔기업 사랑의 꽃배달
- 16 아름다운변화 5개월간의 기적,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 18 다일 뉴스
- 23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cover story

24년간 밥을 짓고 사랑을 퍼드렸습니다.
올 겨울 그 나눔의 현장이 뮤지컬 무대로 옮겨져
더 많은 이웃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드립니다.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Focus 2012, 나눔으로 1°C 따뜻해진 세상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2012년 다일공동체와 함께 나눔에 동참했던

우리 이웃들의 활짝 웃는 모습 속에서 1°C 따뜻해진 세상을 만나시면
마음 한편이 어느새 따뜻해져 있을 것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며 나를 위한 목도리, 장갑을 준비하듯, 우리 주위에 '따뜻함'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나눔으로 마음의 온도를 1°C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Focus '뮤지컬 밥퍼'

나눔의 현장이 뮤지컬 무대로

‘뮤지컬 밥퍼’



뮤지컬 연습장을 찾은 최일도 목사와 연극배우 윤석화, 디자이너 강희숙

다일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인 밥퍼! 88년 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리던 해 최일도 목사가 청량리역 광장을 지나다 나홀 동안 굶은 노인을 만나면서부터 밥퍼나눔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밥퍼나눔운동은 24년 동안 한번도 멈추지 않고 이뤄졌고 지금은 청량리 밥퍼에서 매일 1,000여명의 밥이 퍼지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그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매일 5,500그릇 이상의 밥이 퍼지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밥퍼 사역이 뮤지컬로 제작되어 이번 성탄 기간 중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송년 뮤지컬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으로 공연됩니다.

뮤지컬 밥퍼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뮤지컬의 원작이 된 최일도 목사의 책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은 1995년 출판된 해에 120만 부가 팔리며 출판계에 이슈가 되었던 베스트셀러입니다. 밥퍼가 뮤지컬로 제작되기까지는 서울시 뮤지컬단 유인택 단장과 이재진 제작감독(어린이 뮤지컬 '구름뽕' 제작), 전영택 감독 등이 참여하여 수고한 결과 책 속에 담겼던 나눔의 현장 이야기들이 뮤지컬 무대로 생생하게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원작을 토대로 만들어진 뮤지컬은 1979년 봄 스물셋의 사고뭉치 전도사 최일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전반부는 명동 성당 앞에서 유신철폐를 외치는 시위대에 휘말려 부당을 상한 최 목사는 명동 성당으로 피신을 하고 그 곳에서 운명의 사랑인 로즈수녀(김연수)를 만나 목숨을 건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실화적 사랑과 만남을, 후반부에는 청량리역 광장에서 쓰러진 노인과의 또 하나의 운명적 만남과 이를 통해 시작된 청량리 사창가 사역의 이야기가 파란만장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최일도 목사의 절친한 친구였던 가수 고 김현식, 588직업여성 향숙, 거지대장 황인걸 등 실존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뮤지컬 밥퍼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 일시 : 2012년 12월 18일 ~ 12월 29일
(평일 7시30분/ 토 3시, 7시30분/ 일 3시 총 20회)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예매 : 1.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와 인터파크에서
2. 다일공동체 홈페이지 팝업창 또한 공지사항에서 예매하기 바로 연결
- 문의 : 세종문화회관 02. 399. 1114



밥퍼 배식 장면을 연기 중인 배우들



뮤지컬 밥퍼 속에는...

- 하!** 울겨울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따뜻한 나눔과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 들!**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에 실감 나는 연기가 더해진 공연입니다.
- 셋!** 공연을 보실 때마다 모인 티켓 수익금의 일부가 밥퍼나눔활동에 쓰여집니다.



밥퍼 뮤지컬이 최고야!



Review

Review
다 일 의 날
창 립 예 배
유 럽 영 성 수 려



다일(1111)의 날-다시한번 일어서기

11월 11일은 다일의 날입니다.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한다는 다일이라는 이름에 또 하나의 의미를 추가하여 다시한번 일어서기 하는 날이라 명명하여 무의탁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아가 곧 완성될 밥솥에서도 밥퍼를 찾는 많은 분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행사 전날 밤부터 쏟아지는 가을비와 푹 떨어진 기온 때문에 많이 염려했었지만 염려가 무색할 정도로 행사 도중 밝고 따뜻한 햇살이 나타났습니다. 곳은 날씨에도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감사드립니다.



서울다일교회 창립예배

24년 전 다일교회가 청량리 역 후미진 창고 가건물에서 첫 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고 24년 만에 두 번째 개척교회 서울다일교회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체은혜 감사뿐입니다.

예배안내

- 주일 공동예배 / 매 주일 오전 11시
- 매일 새벽기도회 / 매일 오전 5시 30분
- 매주 수요일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매주 금요일기도회 /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
- * 금요일기도회는 기독교TV CTS에서 매주 금요일 밤 11시 생방송으로 "콜링 것"이란 프로그램으로 들려집니다. 실시간으로 신앙상담과 중보기도 요청에 응답하며 진행되오니, 전화와 SNS로 고민상담 참여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최홍 목사 010-7756-8004, 임정순 전도사 010-8862-0834





영성수련 도우미들



영성수련 진지 도우미들



프랑스 파리 빌봉수련원

유럽, 영성수련을 다녀와서

사랑의 빛진 자로 그 사랑을 전했던 시간 황혜정(막시마님)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4까지 4박 5일간 프랑스 파리 빌봉(villebon)수련원에서 (유럽 영성생활수련) 6기 아름다운 세상 찾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매 번의 수련 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안내하시는 최일도 목사님의 목숨 건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비와 성령님의 강권적 역사가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었지만 특히나 이번 여행은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고 감격스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7년 3월 파리 2기 수련생(벋님)으로 참여 하였던 제가 인턴 도우미로 함께한 감격입니다. 5년 전 그때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놀랍고 감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독일 함부르크에서 살고 있는 딸(까만콩님)의 동행이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렸던 딸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고 경험했습니다.

20여 회의 영성 수련을 섬기며 설레는 수련자의 맘으로, 두렵고 떨리는 도우미의 자리에서 오직 성령님만이 상한 맘으로 파괴된 영성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자유롭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 그 사랑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세상 찾아 누리며 사는 은혜가 감사하여 그 사랑에 빛진 자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직 사랑에 매여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침묵을 통한 다일영성생활수련은 많은 말은 손과 발을 쉬게 하지만 말없는 말로 삶은 더욱 풍성히 표현되어지고 나눔의 삶으로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영성, 영성의 삶을 살게 함을 깨닫게 합니다.

침묵과 절제의 고통 사이에 흐르는 역설적 사랑을 깨달아 가며, 영성 수련을 경험하고 섬김의 시간들은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 사랑의 은혜 놀랍고 감사한 내 감사의 산 제사입니다. 아하!

해외교포들에게 단비와 같았던 시간 이강욱(맥가이버님)

이번 유럽 6기를 섬기면서 이곳은 그래도 선진국이라 이곳에서 사는 이들은 나름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안락한 생활을 할 거라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영성수련을 함께 하면서 저의 이런 생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유학생으로 인한 외로움과 그리고 공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지칠대로 지친 우리 젊은이들의 아파하는 가슴을 온 몸으로 공감할 수 있었으며 유럽 전체에 불어 닥친 경제적 위기로 교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의 크기를 실감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지알아차리기를 하며 정성껏 준비해 주신 한국 음식을 대하며 눈물짓던 유학생들의 감격해 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 앞에 선합니다.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현재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에 있는 의자까지 갖고 오시며 수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시며 말없이 묵묵히 섬겨주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부인되시는 집사님은 당장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성수련을 끝까지 섬기는 헌신적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은 쓰러지셨는데 하나님께서 몸속의 혹 덩어리를 수술도 하지 않고 빼내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해외교포들에게 다일영성수련이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으며, 해외 영성수련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 합니다.



MANUKA
NATURALS
PURE NEW ZEALAND



밥퍼 최일도 목사와 함께하는 착한 크리스마스 매직 포원 Campaign

사랑..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누카 매직 허니크림을 구입하시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빈민촌 아이들에게 동일한 제품이 전달됩니다. 아토피와 각종 피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해주세요~

작은 형제

최일도 목사 올림

Magic for One

마누카내추럴 제품 1개를 구입하시면 [2012 아토피케어엑스포]에서 “천연아토피 우수제품”을 수상한 **마누카매직크림** 1개가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 빈민촌 아이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문의 1588-9803

NAVER 마누카내추럴 ▼ 또는 허니케어 ▼ 를 검색해보세요!



- 중국 다일공동체
- 베트남 다일공동체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 필리핀 다일공동체
- 네팔 다일공동체
-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등 각 국으로 후원됩니다.



www.honeycare.co.kr (공식 쇼핑몰) www.manukanaturals.co.kr (공식 홈페이지)

협력업체



해피빈

I PARK mall

DAIL 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

샘대한아토피협회
SAMDAHAN ATOPIC ASSOCIATION

피어 뉴질랜드
마누카내추럴



마누카내추럴
퓨어 뉴질랜드

착한 크리스마스 매직 포원!



산타클로스님
생크림~!

"아시아와 아프리카 빈민촌 아이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토피를 비롯한 각종 피부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누카내추럴 제품들은 지난 9월,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탄자니아 등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1차 적으로 보내졌으며, 아토피 및 원인 모를 피부질환이 놀랍게 치유되고 있다는 보고를 각 국가 대표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 연고가 아닌, 청정 뉴질랜드 마누카 꿀의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천연성분의 놀라운 효능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빈민촌 아이들의 화상, 상처, 아토피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이 매직포원캠페인에 동참해 주시어 대한민국의 저력과 사랑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형제 **매직포원** 목사 올림

아파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매직포원 공식 후원 쇼핑몰



마누카내추럴(주) 소비자 상담실

1588-9803

해외 다일의 현장 필리핀다일공동체

Philippine

필트립, 덜컹덜컹 지프니를 타고 떠나는
야외소풍



한국은 벌써 첫 눈이 왔고 영하로 떨어진 추위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겨울이 없는 필리핀이지만 이 나라 기후에 적응되어 필리피노화 되어버린 우리들에게는 요즈음이 나름 겨울이랍니다. 한 낮의 기후야 일 년 내내 늘 뜨겁지만 해가 진후에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야 할 정도로 지금은 선선할 때입니다.

필리핀 다일비전센터를 까비떼 G.M.A에 개원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 11월 19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자축하는 의미로 매년 이 날에 유치원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필트립(야외소풍)을 떠납니다. 작년에는 마닐라에 있는 오션파크를 다녀왔었고 올해에는 라구나에 있는 야외온천을 다녀왔습니다. 워낙 가난한 동네인지라 소풍가는 것도 부담이 되는지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해도 엄두를 못내는 부모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대다수의 가정들은 이때를 기회 삼아 온 가족이(대개 4~6명)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또 동네 할머니들이 따라가고 싶어 하셔서 몇 분을 더 모시고 떠났습니다. 하여 어린이 25명, 어른 42명, 모두 67명이 지프니 2대, 스타렉스 2대로 꽉꽉 채워 두 시간 거리의 온천으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생전 처음 동네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보는 어린이들도 많았고 온 가족 나들이를 처음 나서보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하루 온 종일 저에게 '탱큐'를 연발하는 부모님들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많이 흐뭇해 하셨을 것 입니다. '요한'이라는 무녀독남 외아들이 물에 빠져 거반 죽게 된 사건이 한 건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잘 살아났고(후! 아찔),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지프니도 고장 없이 오고 가 주어서 큰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일체 은혜 감사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글/ 김혜경 원장(필리핀다일공동체)

Nepal

밥퍼센터에 가면 배울 수 있어요!!

네팔다일공동체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여성들까지 배움의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걸음에 달려가 봅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밥퍼 센터에 가면 배울 수 있어요!”



대안생리대사업의 첫 과정, 네팔다일재봉기술센터 개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사업에 선정된 빈민촌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생리대사업의 첫 번째 과정으로 직업기술학교인 네팔다일재봉기술센터를 개원했습니다. 빈민촌 여성들 가운데 심사를 거쳐 뽑힌 10명의 여성들이 재봉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센터 옆 허름한 집을 빌려 시작된 기술센터지만 빈민촌 여성들의 희망이 싹트는 ‘희망제작소’로 손색이 없습니다. 매일(12:30~3:00) 열정적으로 재봉기술을 배우는 여성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대안생리대를 만들면서 빈민촌 여성들이 위생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재봉기술을 배우며 여러 가지 작품들도 만들며 그들의 희망을 재봉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2기, 3기, 4기도 모집되어 희망을 재봉하는 여성들이 이어지고, 그들이 배운 기술로 생산조합을 만들어 작은 가게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를 만들려 합니다. 빈민촌에서 하루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이들에 밥을 나누는 일뿐만 아니라 꿈을 꾸게 하는 일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입니다. 네팔다일기술학교에서 재봉기술을 배우고, 재봉재료를 구입하고, 작은 가게를 마련하게 된, 여성이 새로워 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 가정 전체가 새로워지는 꿈을 오늘도 꾸어봅니다.

뜨거운 열기의 태권도교실

코이카 단원 박철민 선생님의 봉사로 시작된 태권도교실이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일주일에 두 번 태권도교실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은 태권도를 배우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예절도 배우게 됩니다.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아이들은 멋진 태권도복을 입고 화려한 발차기를 하는 선생님을 바라보며 이런 꿈을 꾀봅니다.

‘나도 언젠가 멋진 태권도복을 입고 선생님처럼 발차기도 힘차게 하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글/ 박종원 원장(네팔다일공동체)

다일의 현장 **탄자니아다일공동체**



Tanzania

밥퍼 나눔! 현장의 따뜻함을 그대로...

쿤두치 채석장 공터에서 500 명의 아이들에게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밥으로 전하였습니다.

방과 후에 교복을 입은 채 채석장에서 할머니가 깐 돌을 나르는 사브리나, 그리고 함께 노동하는 어린이들, 채석장 빈민촌과 쿤두치 어시장의 아이들까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질서도 잘 지키고, 준비된 동선대로 잘 따라와 줘서 혼란 없이 밥퍼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습니다. 밥퍼 배식을 마치자 한 할머니께서 고맙다며 봉사자들 앞에서 덩실 덩실 춤을 추시며 노래까지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했습니다.



24년 전 곤로와 냄비밖에 없었던 청량리역 광장에서처럼 이곳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건물도 부엌도 없이 밥을 짓고 운반하여 공터에서 먹어야 했지만 이렇게 밥을 나눌 수 있던 것은 후원회원 여러분의 정성 어린 사랑! 보상 없이 대가 없이 선뜻 나서준 20명의 탄자니아 자원봉사자들! 10명의 한국 자원봉사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첫번째 탄자니아에서 퍼진 밥은 밥을 나누는 이들도 밥을 먹는 이들도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이 가득 넘치는 참사랑의 섬김과 나눔의 현장이었습니다.

글/ 변창재 원장(탄자니아다일공동체)



UN 보고서에 의하면 탄자니아에서 빈곤선(하루 1달러 미만) 이하로 생활하는 국민의 비율이 33.6%에 이르며, 중등도의 만성영양불량인 어린이가 38%의 수준에 이릅니다. 지금도 굶주린 배를 움켜진 채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탄자니아 어린이들에게 계속해서 밥퍼가 이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1. 우와~무슨 일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줄을 서 있는 걸까요?
2. 고슬고슬 밥이 지어지는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서 그랬나봅니다.
3. 일찌감치 와서 배식 대열에 선 아기도 '배고파요, 빨리 밥 퍼주세요~' 합니다.
4. 배식 시작!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무릎으로 마음을 다해 식사를 전합니다.
5. 아이가 웃으니 봉사자도 덩달아 웃게됩니다. 이날은 밥도 함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6. 이렇게 사랑스런 아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그냥 보고 있었어요..라고 말하는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변창재 원장과 이현신 부원장
7. 현지 스템들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8. 텐트가 가득차도록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이 날의 오병이어 기적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9. 밥을 맛있게 먹은 소년도 꼬마도 엄지를 치켜들고 말해요, "최고!"
10. 오늘 일일 밥퍼를 위해 함께 해준 모든 스템들의 기쁨은 따뜻해지고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었습니다.



국내 다일의 현장 **다일 러브 컬처 바자**



다일 러브 컬처 바자 DAIL Love Culture Bazaar

〈다일공동체〉가 윤석화 홍보대사와 함께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강희숙부띠끄, 씨실과 날실의 최고급 상품들과 아동복을 착한가격으로 구입하고, 후원금과 수익금은 다일공동체 국내 및 제3세계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분좋은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한, 밥퍼 뮤지컬이 공연되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바자에서는 뮤지컬도 보고, 사랑 나눔에도 동참할 수 있는 1+1의 기회입니다.

- 일시 : 2012년 12월 18일(화)~20일(목) 오후 1시 ~ 오후 5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로비
- 문의 : 다일공동체 02. 2212. 8004

* 이번 바자에서는 현금만 사용가능하고 교환, 반품은 불가능합니다.

다일 공동체를 후원하시는 회원님들이 다일 플라워에서 꽃을 사용해 주시면 **사용금액의 20%**는 **다일공동체에 기부됩니다**

**사랑의
꽃배달
서비스**

다일공동체를 후원하시는 회원님들이 다일플라워에서 꽃을 주문하시면, 사용금액의 20%가 다일공동체로 기부됩니다. 꽃구입과 함께 후원이 되는 사랑의 꽃배달 이용방법은 dail.flowerzip.com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주문합니다. 감사한 분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꽃으로 마음을 전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보세요!

dail.flowerzip.com

아름다운 변화



5개월간의 기적,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무엇을 '처음'이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르은이가 캄보디아다일공동체를 처음 찾아온 날?
아니면 르은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행동을 시작한 날?
이도 저도 아니면, 르은이가 한국에 올 준비를 시작한 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
이 땅에 르은이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의 태양이 가장 뜨거워지는 계절로 가는 3월 어느 날.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 힘없이 찾아온 엄마와 아들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손끝과 발끝은 피가 잘 돌지 않아 파란 기운이 가득했고
눈은 핏줄이 있는 데로 서 있어서
아이의 맑고 초롱초롱한 눈은 찾아보기 힘든
병색이 역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자마자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가 수술비로 모아둔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캄보디아에서는 분명 수술할 수 없었으니 아이를 이렇게 그냥 키웠을 것인데,
그럼 한국에 보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순간, 머릿속은 일시에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던 마음만큼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해졌습니다.

'살리자, 살릴 수 있어.
주님께서 살리실 거야, 그러니 우리에게 보내셨겠지...'



그 마음이 드니, 두려움은 가시고 르은이를 위한 모금을 시작할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를 섬기는 스태프들도 십시일반,
 먼 곳에서 르은이 소식을 듣고 마음을 나누어준 분들 덕분에
 드디어 르은이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

르은이를 위하여 삼성병원에서는 의료진이,
 다일천사병원에서는 수술이후 르은이를 위한 모든 돌봄이
 많은 자원봉사자들로부터는 한없는 사랑이...
 모아지고 나누어지고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르은이는 이 오랜 회복과정을 거쳐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은 땅, 캄보디아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의기소침 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공항 입구부터 한국말로 “엄마!” 하며 한걸음에 뛰어 오는 르은이를 보며
 캄보디아에 있던 가족들과 스태프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조금만 놀아도 힘들어서 그 자리에 눕던 르은이
 말소리는 모기소리만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목소리조차 알아들을 수 없었던
 아이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모두가 “어꾼쁘레아예수(예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주시길,
 11살 르은이에게 일어난 5개월간의 기적은
 희망이라는 이정표로 르은이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글/ 이옥주 부분부장(캄보디아다일공동체)



DAIL NEWS



01 <다일복지재단> 치유와 회복을 위한 꿈을 전합니다 03 <설곡산다일공동체> 설곡산 김장하는 날

국 내 분 원 소 식

01 다일복지재단

동대문구청에 지역사회발전기금 후원 아토피로 고생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대기인기피증은 물론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고, 아이의 질병으로 인해 온 가족들이 지방의 무공해 지역을 찾아 이주를 하기도 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이 심각한 질병과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등으로 각 가정에서 당하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통 받는 청소년들과 학부모와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대한아토피협회, 동대문구청과 다일공동체가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꿈을 공동으로 펼쳤습니다. 이에 지난 다일의 날(11월 11일) 세워진 서울 다일교회의 창립감사헌금과 추수감사주일에 모아진 헌금 전액을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지정기탁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02 다일평화의마을

welcome to 묵안리 피정의 집
묵안리 다일평화의마을이 피정의 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쉼을 누리고 회복되기 원한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 새힘을 받고자 묵안리에 찾아오시면 공동체의 기도(조도, 대도, 만도)생활과 노동기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03 설곡산다일공동체

가을김장노동기도

기도를 노동같이, 노동을 기도같이 하며 나사렛예수의 제자도를 훈련하는 영성과 침묵의 성지 설곡산 다일공동체에서는 D.T.S훈련생들과 노동기도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김장을 담았습니다. 설곡산에서 직접 기른 유기농 배추를 재료로 하여 담은 김치로 옮겨올 내내 영성수련을 받는 모든 벗님들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사랑의 김치를 전하게 됨을 기뻐하며 김장노동기도였습니다.

영성수련을 위한 준비기도회

11월 18일 주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영성벗님인 다일특사님과 수호천사님이 섬기시는 양재동에 위치한 기쁨의 교회에서 140기 영성수련을 위한 준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영성수련 일정과 준비기도회 일정은 인터넷 Daum카페 '다일영성수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http://cafe.daum.net/dailway/>

04 예향어린이집

부모참여수업

10월 27일, 예향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실 부모님들을 모시고 부모참여수업이 있었습니다. 이번 부모참여수업의 주제는 세 가지의 동화테마로 이루어져 부모님이 직접 들려준 동화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연계된 활동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등원하여 선생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활동에 참여하며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참관도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아안전교육-소방안전교육

11월 12일에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소방 안전교육이 있었습니다. 소방 안전교육의 주제는 '뜨거운 것을 조심해요'로 친구들이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뜨거운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왜 위험한지, 뜨거운 것에 데어 화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을 알아본 후에는 소방 안전교육에서



04 <예향어린이집> 오늘은 낙엽 친구와 놀았어요



05 <네팔다일공동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06 <미주다일공동체> 음악과 나눔으로 행복한 가을

배웠던 것을 기억하며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현장학습-양재 시민의 숲을 다녀왔어요

11월 8일, 예향어린이집 친구들이 쌀쌀해진 겨울바람에도 따뜻한 햇볕을 느끼려 양재동에 있는 양재 시민의 숲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을 둘러보면서 차가운 겨울바람 때문에 나뭇잎이 떨어져버린 나무들도 보고 봄에 왔을 때와 다르게 변해버린 넓은 숲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친구들과 나무를 꼬옥 안아주기도 하고 제일 큰 나무도 찾아서 이름도 만들어주었습니다.

11월 생일잔치

11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과, 생일을 축하해주는 친구들도 모두 함께 어린 시절의 하나님을 닮아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준비한 생일선물도 받으며 생일 맞이한 친구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했던 즐거운 생일잔치였습니다.

해 외 분 원 소 식

05 네팔다일공동체

금요기도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청소년봉사팀, 청소년축구팀, 청소년중창단이 스태프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식탁 교제도 갖으며 금요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에서는 마하르 빈민촌을 위해, 네팔다일공동체를 위해, 나아가 전 세계 다일공동체 사역을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청소년 축구팀의 축구공과 새로운 축구화를 미국 시카고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금요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응답과 함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새힘을 얻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덴마크 봉사팀의 정기봉사

덴마크 봉사팀은 비카스라는 청년을 통해 밥퍼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정기적으로 봉사를 옵니다. 아이들은 파란 눈의 봉사자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06 미주다일공동체

네팔선교보고 및 미주순회간증집회

네팔다일공동체 박종원 원장과 팀세나 부

원장의 네팔선교보고 및 미주순회간증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시작해서 시애틀, 남가주, 시카고, 뉴욕, 뉴저지로 이어진 발걸음은 가는 곳마다 은혜와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애틀랜타와 시카고에서는 네팔난민들을 섬기는 네팔교회 목회자들을 만나 뜻 깊은 교제를 나누고 네팔과 미국 내 네팔난민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미주순회집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오른누리 콘서트

제3세계 결식아동을 위한 해오른누리 미주순회 콘서트가 애틀랜타, 텍사스 오스틴,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등에서 있었습니다. 다양한 레퍼토리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행복한 가을을 만끽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수고하신 노준엽 목사님, 정에스터 집사님, 민지홍 형제님과 해오른누리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네팔의 빈민촌 아동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홍리스들과 함께 하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맞아 올해로 9번째 홍리스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추수감사절 특별 밥퍼가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

DAIL NEWS



07 <베트남다일공동체> 아이들의 산타가 되어주세요 08 <중국다일공동체> 사랑해요, 양거 나이나이!

된 애틀랜타 홀리스 밥퍼는 매년 추수감사절에 특별 밥퍼를 하는데 올해도 약 3천여명 홀리스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담긴 특별 밥퍼를 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이들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을 보며 더욱 감사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07 베트남다일공동체

베트남 적십자로부터 감사패 수여

베트남다일공동체는 그 동안 빈흥화 지역의 가난하고 햇빛은 이웃들을 섬겨온 것에 대하여 베트남 적십자 창립 66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베트남 빈흥화지역 적십자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2002년 6월 30일 다일복지재단 설립자 최일도이사장이 알리안츠 생명으로부터 한 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으로 받은 5천만 원을 전액 현금하여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아시아의 이웃을 돌보며 섬기기 위해 설립되었던 베트남다일공동체가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NGO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입니다. “이 땅에 밥 굶는 이가 없을 때 까지 밥퍼는 계속 될 것입니다”.

포스코CT의 이택희, 김성태 봉사자

포스코CT에 근무하는 이택희, 김성태님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밥퍼 사역지

에 봉사를 오십니다. 두 분의 근무지는 호치민이 아닌 봉따우입니다. 봉따우에서 밥퍼 사역지에 오려면 봉따우 숙소에서 배타는 항구까지 택시로 이동하여 쾌속정으로 1시간 20여 분 타고 호치민에 도착해서 다시 택시로 1시간 정도를 이동해야 밥퍼 사역지에 도착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을 토요일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왕복 6시간을 달려오십니다. 오실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항상 쌀을 가지고 오셔서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택희, 김성태 봉사자 같은 분이 계셔서 더욱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크리스마스 후원 안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밥퍼 사역지에서 식사하는 아이들과 베트남다일공동체에서 후원하는 고아원의 아이들, 빈판지역의 빈민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아와 가난으로 햇볕어 고통받는 아이들의 산타가 되어 주세요. 물질과 여러 방면으로 후원을 원하시는 기업이나 개인은 84. 12. 6317. 7912(이종현원장)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08 중국다일공동체

양자선교회 3차 방문 봉사

양자선교회의 허에스터 목사님과 주다비

목사님께서 중국 다일공동체에 방문하셔서 일주일간 봉사해주셨습니다. 허에스터 목사님은 70세이신데 8개월 동안 훈춘에 벌써 세 번째 방문이시니 그 열정이 놀랍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다음 달에 또 오시겠다고 하시며 가셨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두 분이 오시면 “양거 나이나이”(두 분의 할머니)라 부르며 너무나 반기고 행복해합니다. 할머니 두 분이 오시면 매일 매일 사랑 가득한 특식과 간식, 무엇보다도 꼭 안아주시며 기도해주시는 따뜻한 할머니의 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늘 눈물로 중국다일공동체를 위하여 한결같이 기도해주시는 양자선교회! 감사드립니다.

한연, 김현희 생일파티

6일은 연이와 현희의 생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생일을 축하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연이와 하나님의 귀한 아들 현희를 온 맘 다해 사랑하며 축복,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지금 옆에 없지만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니 중국다일공동체 가족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방문해주신분들

미국 시애틀의 동족선교회팀이 의료봉사를 오셔서 온 가족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먼 미국에서 정성껏 가지고 오신 영양제와 약품도 선물 받았습니. 요즘 다일어린이 집에는 현지인 봉사자분들이 자주 찾아주



09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새 단정한 놀이터가 좋아요



10 <탄자니아다일공동체> 탄자니아에서 만나요



11 <필리핀다일공동체> 책에서 배운 내용대로 해보아요

습니다. 지난여름 아이들과 등산을 함께 했던 훈춘 청년회 분들이 오셔서 1차 김장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머만한 양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가셨습니다. 훈춘시 한인교회(담임목사 양철호)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각종 과일을 한아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09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센터 단장

요즘 센터 단장이 한창입니다. 입구간판과 다일천사클리닉 간판을 새롭게 페인트칠하고 아이들 놀이터에 모래를 더 깔고 방과 후 교실 시설수리와 KB다일도서관 앞 보도블록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시설을 점검하여 보수하고 또 외형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센터에 더 많은 분들이 오고하며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센터를 찾아오는 많은 캄보디아 아이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빵퍼 발효기 후원

문서영 자매와 박신애 집사의 후원으로 빵퍼에 발효기를 구입했습니다. 전에는 숯으

로 발효를 한 반죽으로 빵을 만들었는데 발효기로 밀가루를 발효시키니 빵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크기도 커졌습니다. 누구보다 빵을 직접 만드는 스텝들이 매우 좋아하고 감사했습니다. 빵퍼에서 만드는 빵이 맛도 더욱 좋아지고 날로 날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빵을 많이 많이 나누고 빵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널리널리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귀한 후원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 탄자니아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님과 함께하는 탄자니아 비전 트립

탄자니아다일공동체 개원 예배와 비전 트립이 내년 1월 7일부터 18일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륙,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많이 많이 오셔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과 사랑을 가득 퍼 주세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Karibu sana! (카리부 사나! 열렬히 환영합니다!)

11 필리핀다일공동체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에서 공모한 '필리핀다일공동체 도서관 만들기'가

당선되어 기다리던 지원금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책을 사러 세 명의 간사들과 유아원 선생님 '롯데'이 함께 책을 사러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일인지요! 우리 아이들이 이 책들을 읽으며 꿈을 키워나갈 생각을 하니 마음엔 어느새 풍선이 한 아름 달려, 하늘을 두둥실 날고 있는 듯합니다. 아마도 12월 초에는 도서관 개원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배달부 산타를 기다리며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올해도 벌써부터 어린이들이 손가락을 꼬며 성탄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보다는 선물을 더 기다리는 듯합니다.^^ 매년 성탄절마다 오백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학용품 세트를 선물하곤 하였었는데, 올해에도 준비된 사랑의 배달부 산타 천사가 보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한 아이 당 100페소(3천원) 정도면 연필, 공책, 지우개, 크레용, 빵 등을 넣은 선물꾸러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망하며 기다리는 선물꾸러미에 사랑도 함께 담아서 정성껏 보내 주세요. 많이 기다릴 거예요. 올 한해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다일의 천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DAIL NEWS



"나눔, 사랑스러운
다일의 자원봉사자"

밥퍼



뮤지컬 밥퍼를 준비중인 서울뮤지컬 단에서 봉사했습니다. 무대에서의 열정만큼이나 밥퍼에서도 열정이 넘쳤습니다.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봉사를 왔습니다. 생일 축하해요~의미 있는 봉사에 후원금까지 전해주셨습니다.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봉사, 대표님의 술선수법에 직원들도 열심히 봉사에 동참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피산악회에서 첫 봉사 왔습니다. 산악회 이름으로 후원금도 전하시고 매달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정기봉사자 러브피플! 얼마나 똑부러지게 일을 해주는지 이름대로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천사병원



초이사이비인후과 최석주 원장(우)은 병원창립때부터 지금까지 다일의 환우분들이 찾아가면 언제나 친절히 진찰해 주십니다



김호철방사선과의원은 협력병원 중의 하나로, 일반 방사선, X-ray 뿐만아니라 CT도 천사병원 환우들에게는 무료입니다.



연세속편한내과 이승환원장님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심장초음파와 소화기내과 환자들을 섬겨주십니다. 이승환 원장(좌)과 다일직은천국 이명현원장(우)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 2012년 10월 23일~11월 26일 국내통장 입금 기준입니다.

11월 신규후원

(주)에스엘피(최경락), (주)웨딩스쿨, (주)플라워팀, 3050아띠산악회, BNPPARIBASHONGKONGBRANCH, BNP파리바후원, GS건설조직문화, 강대승, 강민구, 강민주, 강선기, 강선옥, 강창형, 강혜옥, 경기도화물운송협회, 고송희, 고준식, 공성국, 구본희, 국군중앙교회청년부, 국현정, 권명현, 권영경, 권영희, 권은숙, 금선애, 금주형, 김경문, 김경민, 김경숙, 김규리, 김규영, 김기홍, 김대환, 김덕혜, 김명관, 김명월, 김미자, 김민우, 김복남, 김상훈, 김서진, 김석호, 김성옥, 김성준, 김송이, 김소나, 김수미, 김수빈, 김승범, 김승태, 김승현, 김연주, 김영녀,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철, 김영호, 김영희, 김용기 (이말선), 김원하, 김유리, 김유옥, 김윤희, 김인호, 김재열, 김재홍김혜정, 김정범, 김정은, 김정혜, 김주옥, 김진선, 김치길, 김태영, 김태훈, 김하현, 김현경, 김형준, 김혜은, 김혜정, 김호연, 김홍선, 나수애, 남궁정은, 남기은, 남영숙, 남희석, 노영근, 다일공동체, 대흥교회(여선교회), 도해영, 문정환, 문형우, 박경아, 박기창, 박말남, 박무창, 박미나, 박봉진, 박상영, 박상원사진전, 박성갑, 박성란, 박성용, 박세진, 박소민, 박영순, 박옥수, 박유신, 박은숙, 박이선, 박자용, 박정숙, 박정아, 박정운, 박주현, 박지은, 박진형, 박철언, 박태준, 박향미, 박혜원, 박혜정, 박환용, 배승권, 백우빈, 백인훈, 변동제일교회(6남선교회), 변성주, 서문숙, 서울다일교회, 서울인재개발원, 서홍원, 설경화, 설악BBQ, 설악관광호텔, 설악면옥, 설악양평해장국, 성기열, 성기옥, 손재익, 송혜정, 스키아이스키회사, 신대성, 신지원, 심규석, 심용, 심인홍, 쌍용제지(주), 안병희, 안상은, 안용병, 안은정, 안지웅, 안홍진, 양소라, 양영희, 엄순자, 연세대학교여학당, 연세의료원, 오동수, 오성림, 오순선, 오승환, 오윤홍, 울대아트, 왕순옥, 왕시연, 왕은숙, 우정, 우현아, 원동운, 유광훈, 유기모, 유상보, 유수연, 유찬희, 유철호, 유희영, 윤순옥, 윤영식, 윤영자, 윤완선, 윤준, 이건영, 이경돈, 이경신, 이경준, 이기애, 이남숙, 이다혜, 이대희, 이덕자, 이문애, 이미선, 이병국, 이순례, 이순옥, 이엔지드라마 영어연극연구소, 이연순, 이용희, 이유진, 이윤화, 이재기, 이재현, 이종규, 이종숙, 이종효, 이진, 이진희, 이창순, 이창용, 이택규, 이현민, 이혜경, 이혜란, 이혜림, 이희규, 이희숙, 임민구, 임승연, 임호빈, 장미득, 장은정, 장인규, 전국교역자부인회, 전오영, 전지영, 정갑봉, 정영주, 정옥희, 정유섭, 정준영, 정한나, 제갈한덕, 조경준(생일기념), 조순옥, 조영분, 조영재, 조인환, 조정현, 조준범, 조효민, 존재이장, 좋은친구들, 진기선, 차미혜, 채석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최은영, 최인순, 최정화, 최정훈, 최종민, 최진규, 최천노(장숙희), 표종목, 필원우, 한국교직원공제회, 한민재, 한상훈, 허수정, 허정아, 형지현, 홍관철, 홍문자, 홍승태, 홍영란, 홍은주, 홍정현, 홍호연, 황부경, 황인기, 홍일마을교회, 무명

반파나눔운동 후원

[후원금]

서울우유, 김수일,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우일교회, 국순애, 박종일, GS건설 자이사랑나눔, 크룩스, 일산은혜교회, 이종욱, 좋은친구들, 수도권산악회, 최성봉, 엠엔글로벌, 김도순, 황귀중, 한국벤처투자, 3050아띠산악회, 서장선, 양순화, 최상래, 이영숙, 정유신, 홍남숙, 최경근, 대한지적공사, 경기도화물연대, 에이엠지코, 법무법인 화우, 조경준, 광영희, 박동균, 윤순옥, 러브피플, 동아제약(저금통), 흥국생명, GS건설조직문화팀, 석성, 국방홍보원, 최주영, 연세의료원, 변동제일교회, 인호진, 이일옥, KB사회협력부, 윤현숙, 강선옥, 신민숙, 권혜진(휘슬라), 정신남, 김영녀, 에스케이텔링크, 무명, 김성철, 홍경화, 맛닭꼬(김선명), 쌍용양회,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연세대학교여학당, 김수일, 광현교회, 김윤옥, 전국교역자부인외선교회

[후원물품]

- 10/22 옹술불갈비 김치 200kg, 강민수 · 이초하 씬바귀 1box,
- 10/23 두리반김치 20kg, 황금종합미교 60kg
- 10/24 서국길 쌀 200kg, 무명 쌀 20kg
- 10/25 다우케미칼 쌀 8kg, 무명 김치 20kg
- 10/27 사조 첫갈 576box
- 10/30 영란여자중학교 과일 10box
- 10/31 두리반김치 20kg
- 11/1 가나안덕 오리훈제 7box
- 11/2 강호동팬클럽 쌀 100kg
- 11/6 김종민 쌀 240kg, 두리반 김치 20kg

- 11/8 이순희 고추가루 13kg, 김규석 쌀 10kg
- 11/12 박홍진 김치 20kg
- 11/13 경흥농장 굴 50box, 두리반 김치 20kg
- 11/15 서울우유 우유 1,008개, 강민수 · 이초하 씨래기 1box
- 11/19 무명 배추 22포, 미나리 1단
- 11/20 소망교회 과일 50box, 경흥농장 굴 50box, 무명 김치 10kg, 장중균 과일 12box

[후원약정자]

서병구, 오성림, 오성림외12명(서울유지컬단), 박정윤, 신지원, 김수빈, 김영식, 김채훈, 김민우, 강인철, 김성준, 왕순옥, 이경돈, 김홍선, 이미선, 임민수, 김주옥, 안지웅, 조인환, 김숙남

< 해외분원 >

중국다일공동체

[방문&후원]

김성재(Obey & Praise), 이숙의(시카고스마일, 스마일피기닝), 양자선교회(대표 허에스더 목사), (주)소명철강, 이병준, 이현신, 평생 후원자, 대전 동안교회, 이은준, 한기모, 차지훈, 지준란, 한해연, 박예진, 심형, 이호원, 김학용

베트남다일공동체

[나눔회원]

아리랑화학, 대우INTERNATIONAL, 사이

공한인연합교회, 포스코베트남(600만동)

[정기후원]

최혜림 · 헤인 · 기홍, 남승현, 김순자, 송윤서, 배준익, 추원미

[물품후원]

도넛도넛(도너츠 363개), 포스코ICT(쌀 20kg+바나나)

[모금함]

호치민문누리교회(463,400동), 스카이다트(612,500동), 강경태 모금함 40개

[자원봉사자]

포스코베트남 우정재외2명, 대우INTERNATIONAL 최시호 외 8명, 포스코SOUTH ASIA 서도석, 김중성의 5명, 송채린, 이창순, 배진영, 포스코CT 김광석, 장준화, 박용남, 이달우, 정혁선의 5명

필리핀다일공동체

[방문&후원]

한상소, 지일환, 박현숙, 이정숙, 신동환, 필리핀PTS한인교회, 신동이, 전용민, 신유용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천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충주시 자원봉사센터, 중앙대 고혜연 외 9명,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이사장 한창섭, 평안노인복지관 이종현, 정규식, 사랑과섬김, 카도, 반딧불탐험대, 강원도사회복지관협회

다일은 여러분의 맘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30%(최대 3만원)가 다일공동체에 가입회원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 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지역 후원계좌

-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 은행번호 : 061119794
 - 계좌번호 : 1510014622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34001270347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 국내후원계좌 국민 467701-01-05311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DAIL Community of USA Fax 1-770-813-0133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باطننا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beh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Sunyou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433-753-8004

E-mail 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12-6317-7912 070-8220-6160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855-12-808861

E-mail lightk@dail.org
후원계좌 씨엠립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프놈펜 국민 467701-01-14257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278 63-927-560-7346

E-mail 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1-384069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669 255-786-740-003

E-mail bcj337@dail.org / dail8004@g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5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내 손 안에서 만나는
다일공동체의 다양한 “감동스토리”
다일TV “채널 111번”



다일공동체의 다양한 정보와
현장의 진한 감동이 살아있는
다일공동체 모바일 TV

시청 방법

스마트 폰에서 애플스토어 또는 구글 마켓에서 '에브리온TV'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111번 다일 TV채널 선택

모바일 앱을 통해 다일공동체를 만나실 때에는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동통신사별로 무선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되며,

Wi-Fi를 이용할 때에는 무선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www.dail.org

거리성탄예배

다일공동체 25번째 거리성탄예배

12월 25일, 다일공동체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 넉넉한 사람,
어린이, 노인 구분없이
다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축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즐겁고 배부른 이날,
대한민국 온도가 1℃ 올라갑니다.

일시 2012년 12월 25일(화) 11시

장소 창릉리, 밥퍼니눔운동본부 앞마당



www.dail.org